



return Farm;

A Decentralized Farm Management and Simulation Game

version 1.0

목 차

1. return Farm;	1
1.1 유저가 만들어 가는 게임	1
1.2 블록체인을 활용한 dApp 게임	2
1.3 비전	3
2. 게임 플레이	5
2.1 농사	6
2.2 NFT로 나만의 집 꾸미기	9
2.3 낚시터	9
2.4 랭킹전	9
3. 토큰 이코노미	11
3.1 토큰	11
3.1.1 토큰 배분	11
3.1.2 토큰 종류와 사용처	12
3.1.3 농작물의 등급 대비 가격 형성 과정	12
3.2 수수료	13
4. 기술	14
4.1 ERC20	14
4.2 ERC721	14
4.3 Web3js	14
5. 커뮤니티	15
5.1 유저 간 교류	15
5.2 커뮤니티	16
5.2.1 return Farm; 커뮤니티	16
5.2.2 잎 토큰과 농산물 교환	16
6. 팀	17

return Farm;

1.1 유저가 만들어 가는 게임

농장 경영 게임은 정해진 게임 시스템에 따라 게임을 플레이한다. 레벨에 따라 가능한 행동과 이동 범위가 정해져 있다. 퀘스트를 수행해야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퀘스트도 수행해야 한다. 게임 회사가 만들어준 아이템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게임은 유료 아이템이 내가 정성껏 키운 캐릭터를 순식간에 상회해서 허무해질 때도 있다.

return Farm;(이하 리턴팜)에서는 유저가 어떤 작물을 키울지, 집을 어떻게 꾸밀지, 어디로 갈지 모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리턴팜 안에서는 농사 짓기, 집 꾸미기 등을 한다. 키우는 것에 열중하고 싶다면, 집을 꾸미지 않아도 된다. 농사만 하는 게 지겨워졌다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할 수도 있다. 꾸미는 것에 흥미가 있다면, NFT를 만들거나 구매하여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나만의 집을 꾸밀 수 있다. 소소하게 수익을 얻고 싶다면, 친구의 밭을 도와주거나 작물을 키우거나 NFT를 발생해서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하면 된다.

리턴팜은 유저들에게 게임에서 시간과 돈을 들이며 열중한 만큼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 게임을 즐길 유저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사하려 한다.

1.2 블록체인을 활용한 dApp 게임

1.2.1 탈중앙화 게임

기존의 온·오프라인 게임은, 게임을 만든 회사가 게임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유료 아이템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란 게임 회사가 만들어 제공하는 것만 살 수 있고 게임에서 쓸 수 있다. 즉 내가 원하는 기능이나 디자인의 아이템을 게임 회사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쓸 수도 없다. 유료 아이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게임 밖의 현실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이템을 거래하려고 해도, 거래 상대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상대가 제대로 돈 혹은 아이템을 건내주길 바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유저의 모든 정보는 게임 회사 서버에 저장된다. 유료 아이템, 레어한 아이템을 갖고 있거나 또는 매우 높은 레벨의 캐릭터를 키우고 있다면, 해킹을 당할 위험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다.

그에 반해 리턴팜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상의 게임이므로, 개발팀은 플레이 환경을 최소한으로 제공할 뿐이다. 유저가 원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NFT로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주문 제작해서 사용한다. 유저 간의 거래(혹은 교환) 역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 혹시 거래가 잘못 되었더라도 블록의 기록을 추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리턴팜에서 유저는 블록체인 지갑을 연결해야만 토큰 교환 및 NFT 거래가 가능하다.¹ 따라서,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토큰이나 NFT는 유저나 게임 회사가 아닌, 블록체인에 기록 및 저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자신이 정성껏 키운 농장 혹은 게임 내 중요한 자산이 사라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1.2.2 기존의 P2E, NFT 이미지 탈피

크립토키티 등 많은 P2E 게임의 코인들이 급등을 하면서, 사람들이 P2E 게임을 지나치게, 오로지 수익을 위한 플레이를 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코인이 급등하던 비슷한 시기에 NFT 역시, 소수의 특정 NFT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NFT에 사용된 기술보다 수익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 NFT의 사용처란, 미술품이나 MLB 농구선수 카드처럼, 결국 구매자 혼자 보거나 소장하는 있는 것 외에는 큰 기능이 거의 없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어, BAYC에서 발행하는 NFT는 소장으로써의 가치도 있고, 그 자체로 회원권 역할을 하기도 한다.

리턴팜은 게임 자체의 재미를 살려서, 유저들이 수익성 못지 않게 게임에 집중하여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턴팜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나의 농장과 집을 넓히고 꾸미는 게임이다. 하지만 농사는 작물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정해진 횟수만큼 물을 줘야 하고, 농사 일을 많이 하였다면, 캐릭터의 체력이 닳았으므로,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 즉 캐릭터의 생존 또한

¹ 지갑이 없는 회원이라면, 첫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 시에 지갑을 생성하여 준다. 그러므로 본 게임은 모든 유저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지갑을 갖고 있을 것을 상정하고 있다.

재미있는 플레이 요소 중 하나가 된다. 수확은 타 농장 경영 게임에 비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수확을 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면, 게임 내 사용 가능한 햇살 토큰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햇살(Haessal) 토큰은 잎(IP) 토큰으로 교환 가능하며, 잎 토큰으로는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NFT로 자신의 집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한 유저 뿐만 아니라, 유저의 친구들이나 다른 유저들도 본인이 구매한 NFT를 구경할 수 있다. 유저들에게는 집 꾸미기라는 목적과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NFT를 검색하고 만들고 매매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나아가 NFT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어, NFT를 만드는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 비전

-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알린다.
- 리턴팜은 기존의 P2E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게임성에도 중점을 둔다.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하는 토큰 이코노미를 제공하여, 대중의 코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고, 유저들이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수집에 치중된 NFT를 적극 활용할 환경을 제공하여, 대중에게는 NFT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유저 및 디자이너 사이에서는 활발한 NFT 매매 및 순환이 이뤄지도록 한다.
- 나아가 리턴팜의 잎 토큰으로 현실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농가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을, 유저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크립토 이코노미를 제공한다.

2. 게임 플레이

게임 플레이에서 현재까지 구현된 기능은 토큰 교환, GLTF 3D 이미지 파일로 NFT 생성 및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땅 정보와 인벤토리의 정보 가져오기 및 업데이트, 거래소에서 아이템 판매 및 구매이다. 앞으로 구현하려는 부분들은 낚시터이며, 랭킹전은 실제로 게임을 배포한 후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2.1 농사

2.1.1 토큰 교환

농사 플레이에 필요한 모든 재화는 햇살 토큰을 통해서 구매 가능하다. 그러므로 먼저, 갖고 있는 잎 토큰을 햇살 토큰으로 교환하자. 수확물을 판매하여 얻은 잎 토큰은 일정량을 모아서 교환이 가능한 단위가 되면 다시 잎 토큰으로 교환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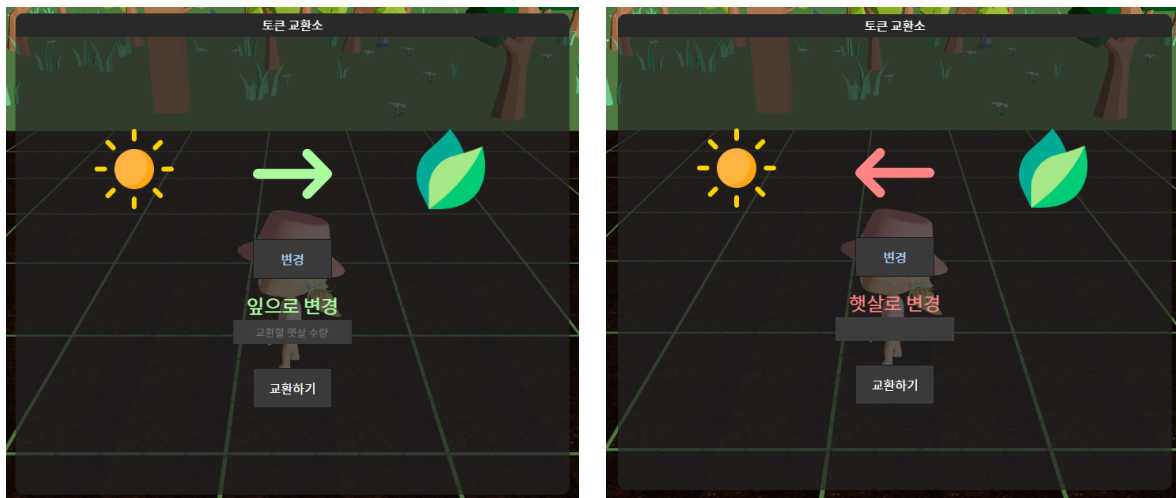


그림 1. 토큰 교환

2.1.2 농사 짓기

햇살 토큰으로 거래소에서 판매 중인 농사에 필요한 씨앗을 구매한다. 땅 1칸에는 씨앗 1개를 심을 수 있다.

각 작물의 씨앗 가격과 수확물의 가격, 자라는 기간은 상이하다. 수확한 작물을 거래소에 판매하여 햇살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

획득한 햇살 토큰으로 땅을 구매하여 농장을 더 키울 수 있다. 또는 햇살 토큰으로 다른 작물의 씨앗을 사서 심을 수 있다.

2.1.3 작물 관리 및 체력 관리

각각의 작물은 심은 뒤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밀은 하루에 3번 물을 주어야 하며, 3회 초과 혹은 미만으로 물을 주면 수확한 밀의 등급이 중에서 하로 떨어지게 된다.

더 좋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 거래소에서 비료를 구매하여 비료를 줄 수 있다. 비료를 작물에게 주면 등급이 중에서 상으로 오르고, 수확물의 판매 가격이 오른다.

작물이 열매를 맺어 수확할 수 있는 시기로부터 3일이 지나면, 썩어서 수확할 수 없게 된다. 얼마나 물을 주었는지 등의 땅 상태는 땅의 좌표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다.

유저의 캐릭터는 열심히 농사 일을 하였으므로, 체력이 떨어진다. 체력은 한국 시간으로 12시, 24시에 50%씩 자동회복된다. 만약 자동 회복 되기 전에 더 많은 농사 일을 하고 싶은 유저라면, 2차 가공품을 먹어서 체력을 보충하도록 하자. 2차 가공품은 수확물을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스스로 만들거나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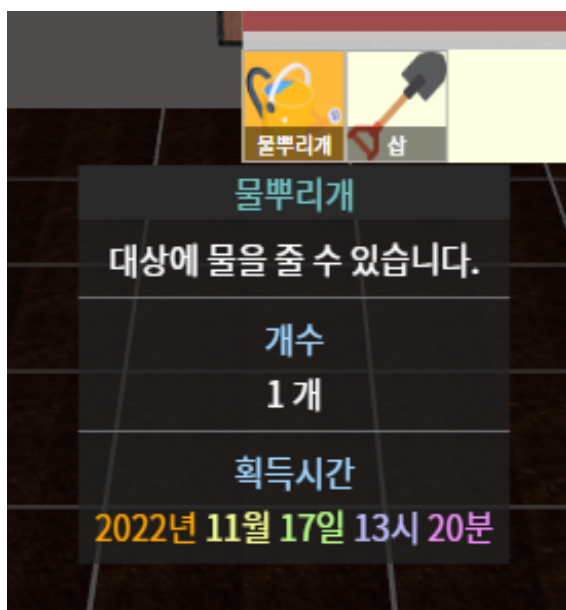


그림 2. 작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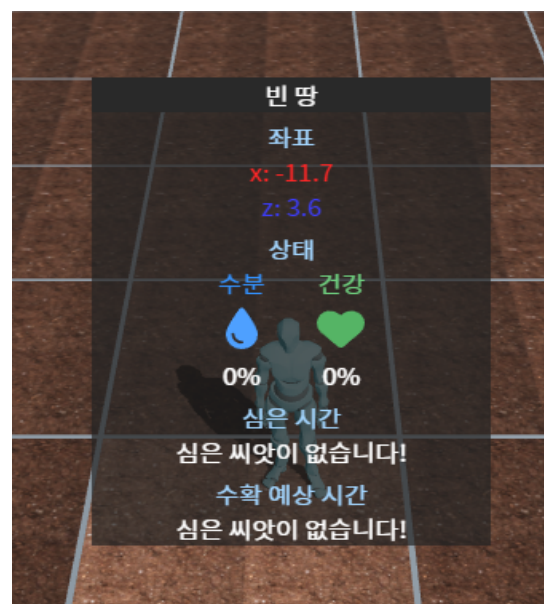


그림 3. 땅 상태

2.2 NFT로 나만의 집 꾸미기

2.2.1 NFT 생성 및 플랫폼

form 형태로 GLTF 이미지 파일, 썸네일 이미지 파일, NFT 설명 등 정보를 리턴팜의 NFT 생성 페이지에서 업로드 한다. 서버에서는 GLTF 이미지 파일을 IPFS에 업로드 하여 tokenURI를 생성한다. DB에 있는 유저의 privatekey를 조회하여 민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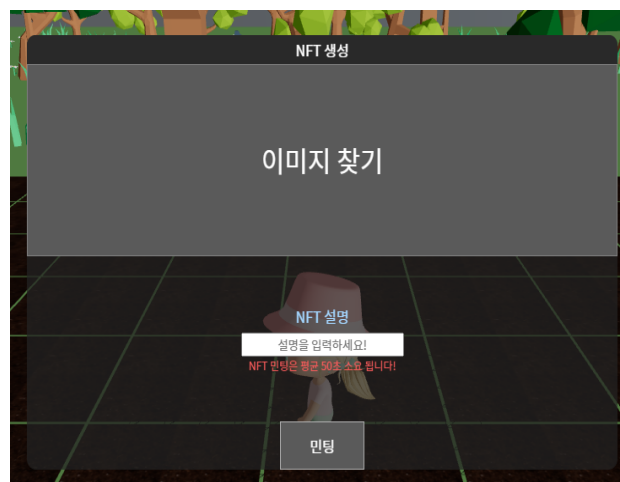


그림 4. NFT 민팅 페이지



그림 5. NFT 전송 페이지

리턴팜에서 생성한 NFT는 게임 안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오픈씨와 같은 NFT 거래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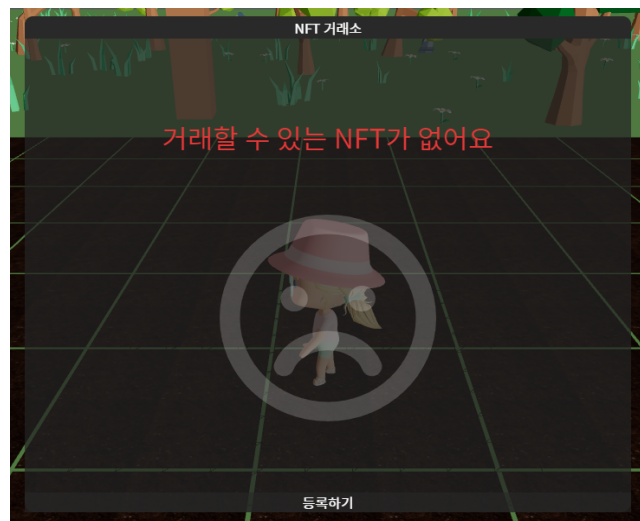


그림 6. 민팅 조회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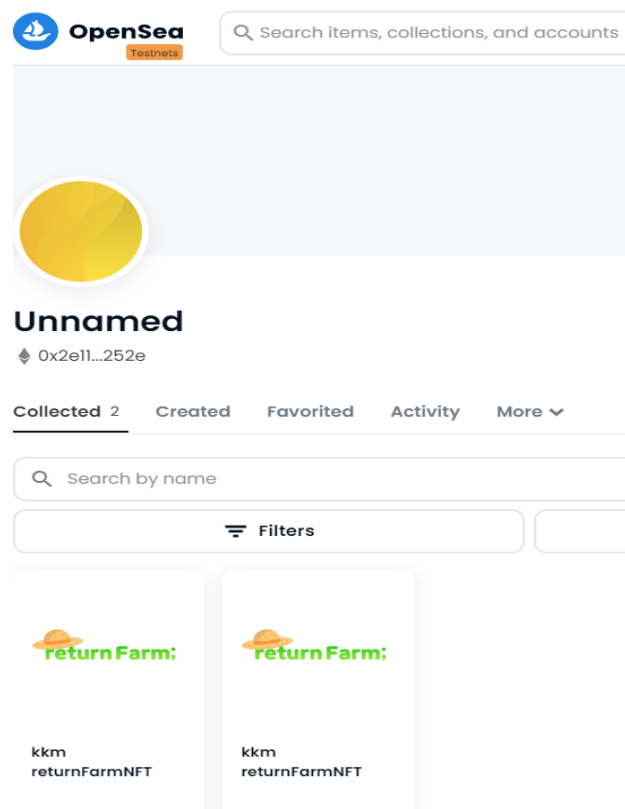


그림 7. 오픈씨의 NFT 조회 페이지

2.2.2 집 꾸미기

자신이 갖고 있는 NFT를 사용하여 리턴팜에 있는 자신의 집을 꾸밀 수 있다. NFT로 된 가구이므로, 리턴팜에 있는 유저의 집은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집이 된다. 예쁘고 멋지게 꾸민 나만의 집은 게시판에서 집 사진과 함께 게시가 가능하다. 게시판에 올려진 나의 집을 보고 다른 유저가 나의 농장과 집에 방문이 가능하므로, 열심히 꾸며보자.



그림 7. 가구 NFT 예시

2.3 낚시터

낚시터에서는 다양한 아이템을 무작위로 얻을 수 있다. 낚시는 한 번 할 때 100햇살을 요구하며, 아이템을 낚으면 낚시는 끝나므로, 더 낚으려면 햇살 토큰을 내야 한다. 1번의 낚시가 아쉽다면 여러 번 도전 가능하다! 낚을 수 있는 아이템은 농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료 등 농사 아이템, 햇살 토큰(1~3개), NFT 할인권(화이트 리스트)이 있으며, 낚을 수도 있다.

농사 아이템은 매번 같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으며, 특별 기간에는 트랙터와 같은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

2.4 랭킹전

리턴팜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랭킹전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랭킹전은 두 가지로, 하나는 수확 랭킹전이고 다른 하나는 방문자 수 랭킹전이다.

수확 랭킹전은 일정 기간 동안 누가 더 많이 수확물을 걷었는가에 대한 랭킹전이다. 수확물은 작물에 따라 수확 기간이 상이하므로, 작물에 따라 수확 갯수가 상이하다. 즉 밀을 1개를 수확했다면 밀 1개는 1개로 개수하고, 포도 1개를 수확했다면 포도 1개는 7개로 개수한다. 이렇게 개수한 작물을 랭킹전이 끝나는 날 개수하여 가장 수확물 갯수가 많은 유저는 운영측이 준비한 상을 받게 된다.

방문자 수 랭킹전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 많이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농장이 우승하게 되는 랭킹전이다. 유저들은 게시판을 통해 맘에 드는 집에 방문할 수 있다. 집은 NFT로만 꾸밀 수 있다.

파란색 : 회의 때 내용 적용한 것

빨간색 : 임의로 적은 내용

3. 토큰 이코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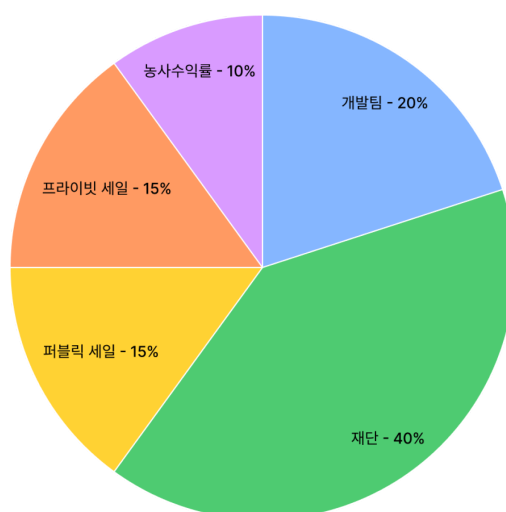
리턴팜은 햇살 토큰과 잎 토큰으로 토큰 이코노미를 구성한다. 햇살 토큰과 잎 토큰은 상호 보완적인 토큰으로 일정 비율로 교환이 가능하다. 햇살(Haessal) 토큰은 ‘해에서 나오는 빛의 줄기’라는 뜻의 ‘햇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잎(IP) 토큰은 식물에서 광합성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는 기관인 ‘잎’으로 이름 지었다.

햇살 토큰은 NFT 활동을 제외한 게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수단으로 사용된다. 잎 토큰은 NFT 민팅과 거래에 사용된다. 유저는 햇살 토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잎 토큰으로 교환을 해 NFT를 거래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 팔기가 가능하다.

햇살 토큰은 DB에 존재하는 가상의 게임 재화로 가스비를 지불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잎 토큰과 일정비율로 거래가 가능하여 실제 화폐 가치를 가진다. 잎 토큰은 햇살 토큰의 안정화를 위해 사용되고 유저들은 시세의 걱정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다. 잎 토큰은 유한 발행 토큰으로 총 30,000,000개를 발행한다. 초기 목표가를 1000원으로 설정하여 총 300억의 시가 총액을 보유한다.

3.1 토큰

3.1.1 토큰 배분



그래프 1. 잎 토큰 배분 비율 그래프

앞 토큰의 발행 비율은 시세의 안정성을 유지 시키는 것과 유저에게 수익을 나누기 위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구성된다. 개발팀은 20%, 재단은 40%를 보유하여 시중에 풀려있는 앞 토큰의 양보다 더 많게 구성하여, 앞 토큰과 햇살 토큰의 큰 가치 변동을 대비한다. 퍼블릭 세일은 15%로 구성하여 목표가 보다 저렴한 950원에 일반 유저들을 상대로 판매를 진행한다. 프라이빗 세일 또한 15%로 퍼블릭 세일의 양과 같게 구성하여 로드맵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을 하는 방식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한다. 프라이빗 세일 물량은 필요시에 운영팀에 판단에 의해 일정부분 소각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사수익률 10%를 따로 구성했는데, 농작물 판매로부터 얻은 수익을 해당 풀에서 지급하게 된다. 운영팀은 농사수익률의 남는 양에 따라 수익률을 임의 조정할 수 있다.

3.1.2 토큰 종류와 사용처

앞 토큰은 유한발행 ERC20 토큰으로 스마트컨트랙을 사용해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다. 유저는 거래소에서 구매한 앞 토큰을 햇살토큰으로 교환해 게임에서 사용하거나 NFT 마켓에서 3D NFT를 구매해 마이홈을 꾸밀 수 있다. 햇살토큰은 DB의 가상 재화로 리턴팜 게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가치를 가진다. 앞 토큰과 교환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씨앗, 농기구 등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다. 상점에서 구매한 씨앗은 상호작용을 통해 농작물로 키워 다시 상점에 팔 수 있다. 농사를 통해 얻은 수익은 농사수익률 풀에서 지급하게 된다.

3.1.3 농작물의 등급 대비 가격 형성 과정

농작물들은 재배시간(α)과 품질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된다. 재배시간(α)이 증가할 수록 수익률은 더욱 커지게 된다. 운영팀에서는 농작물 씨앗의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수익률은 아래 공식으로 재배시간(α)에 따라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품질은 운영팀에서 정한 임의의 규칙으로 결정 된다. 품질에 따른 수익률 또한 아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X = 0.25\alpha + \frac{0.05}{2}(\alpha - 1)$$

공식 1. 재배기간(α)에 따른 수익률

하	x
중	$x + 0.05$
상	$(x + 0.05)1.2$

표 1. 농작물 품질에 따른 수익률

품질 / 수확 획수	땅 1개에 대한 순수익금	땅 100개에 대한 순수익금
하	3.04 헥타르	304 헥타르
중	3.12 헥타르	312 헥타르
상	3.744 헥타르	374.4 헥타르

표 2. 포도² 농작물 수익금 예시

3.2 수수료

리턴팜을 지속적인 게임으로 만들기 위해 운영팀은 유저로부터 NFT 민팅 하는 비용을 수수료로 받고(현재 1 헥타르), NFT 마켓 거래에서 판매 수수료의 10%를 수수료를 책정한다.

² * 포도 씨앗 가격: 160 헥타르

* 포도 씨앗 재배 기간 : 7일

4. 기술

리턴팜 게임에 사용된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또한 이 기술들은 제작에 모두 사용된 기술들이기도 하다.

4.1 ERC20

리턴팜의 기본 재화 중 하나인 잎 토큰은 ERC20 토큰으로 대체 가능한(fungible) 토큰이다. openzeppelin 라이브러리의 ERC20 컨트랙트를 상속받아 배포됐다. ERC 토큰을 사용해 NFT 민팅 거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NFT마켓에 등록된 3D 파일을 구매할 수 있다.

4.2 ERC721

리턴팜은 3D 창작물은 민팅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openzeppelin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ERC721 컨트랙트를 상속 민팅된 토큰은 NFT(Non-Fungible Token)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고유의 tokenId를 부여받는다. 리턴팜의 ERC721 컨트랙트는 ERC20(잎 토큰)을 사용하여 거래가 가능하게 설정한다(setToken). 유저는 NFT를 마켓에 등록할 수 있고, 전송 권한을 부여 받은 서버계정은 구매자에게 구매 가격을 잎 토큰으로 받고 NFT를 보내준다. 또한 유저간에 직접 NFT를 전송하고 받아 볼 수 있다.

4.3 Web3js

리턴팜에서 배포한 두 개의 컨트랙트를 JS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브러리이다. JS에서 배포된 컨트랙트의 함수들을 이용하여 트랜잭션을 발생시켜 유저 간에 거래를 자동화 할 수 있다.

5.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현재 채팅창까지 구현이 완료되었다. 앞으로 구현해야 할 기능들은 게시판으로 이동과 잎 토큰과 농산물 교환이다. return Farm; 게임 커뮤니티는 게임이 배포되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잎 토큰으로 농산물을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게임이 배포되어 자리매김을 한 이후에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5.1 유저 간 교류

“~타이쿤”으로 시작되는 경영 게임은 유저가 각 레벨마다 나오는 퀘스트를 수행하여 점점 게임 속의 나의 집, 나의 가게, 나의 농장을 업그레이드 한다. 리턴팜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유저들이 서로 활발히 게임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장려한다. 예를 들어 방문자 수 랭킹전에서 높은 랭킹에 오르려면, 내 집에 투표 해줄 친구들을 미리 많이 사귀거나 모집해야 한다. 그러므로 리턴팜에서는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 받는 소통 그 이상의 적극적인 교류 활동이 가능하며 장려하고 있다.

5.1.1 채팅

리턴팜에서는 채팅 기능을 통해 접속한 다른 유저와 소통이 가능하다. 전체 채널 채팅창이므로 필요한 아이템 거래 및 교환을 위해 채팅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5.1.2 친구 집

게시판 혹은 맵을 통해 친구 집으로 이동할 수 있다. 친구 집에 놀러가면 친구의 NFT를 구경하고 친구가 꾸민 집도 볼 수 있다. 또한 친구의 농장을 도울 수 있다. 친구의 밭을 도우면, 친구의 밭에 숨겨진 NFT 할인권을 얻을 수 있으므로, 친구를 많이 만들 것과 친구의 밭을 도울 것을 적극 추천한다.

5.1.3 게시판

게시판에는 누구나 자신의 집을 사진으로 찍어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온 친구의 집이나 다른 유저들의 집 사진을 보고 클릭하면, 해당 농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 게시판에 있는 사진을 보고 맘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를 수 있다.

5.2 커뮤니티

5.2.1 return Farm; 커뮤니티

리턴팜 커뮤니티는 유저들이 만든 커뮤니티로, 아이템 거래 및 교환 그리고 NFT 주문 제작 등을 하는 곳이다.

5.2.2 잎 토큰과 농산물 교환

리턴팜은 국내 농가의 새로운 수입원 제공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농가를 찾아 연결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잎 토큰으로 농산물을 교환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이기도 한 유저는 유통의 간소화로 국산 농산물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농산물의 구입은 잎 토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열심히 플레이하여 햇살 토큰을 모았다면, 초반의 투자 이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얻게 된다.

잎 토큰과 농산물의 교환은 잎 토큰의 가격 변동을 줄여줄 뿐 아니라, 블록체인과 코인에 대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인을 투기로써 인식하고 있던 사람들의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 바꿔줄 기회로써도 기대하고 있다.

6. 팀

곽규명

정은경

역할 : 데이터베이스, 토큰 이코노미 구성

강석민

역할 : 스마트컨트랙트 개발, 거래 API 제작, 토큰 이코노미 구성

리턴팜으로 힐링과 수익 모두 챙겨가세요~!

김륜하

역할 : 백(서버), 토큰 이코노미 구성

보람 찬 농장 경영 게임, 리턴팜! 리턴팜은 아기자기한 디자인에 귀농하고픈 현대인의 욕망(?)을 일부 실현시켜주기 때문에 엄청 힐링이 된다. 수확한 작물은 게임에서 소비되지 않고 햇살 토큰 나아가, 잎 토큰으로 수익까지 주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게임을 하면서 내 농장이나 잔고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나만이 집을 꾸미는 것도 보람차다. 지금까지 디자인이나 3D 모델링과 전혀 연이 없었더라도 괜찮다. 리턴팜을 시작한 것부터 이미 당신은 앞으로를 선도할 기술들(블록체인, NFT, 3D 모델)을 여럿 사용하고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샌가 3D 모델도, NFT도 익숙해질 것이다.